



우리시대 참스승

포천삼정초등학교 교장 한 태 현

열악한 교육환경 가운데 희망 심는 교육

삼성중학교와 골프·원어민 교류수업 실시

2004년9월1일 포천삼정초등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초빙교장으로 취임한 한태현(사진)교장은 지난 2년여동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에 나섰다.

충청북도 충주시 출신으로 교원초등학교, 충주중학교, 한양공고, 충주교대 양성소를 통해 준교사로 교직에 입문한 한 교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1978년3월 경기도로 전입하여 파주 천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3월 포천 영평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승진해 양주시 은현초등학교, 2000년 교장으로 승진해 양주 덕현초등학교에서 2004년9월1일 포천삼정초등학교 초빙교장으로 부임했다.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405번지에 위치한 삼정초등학교는 현재 69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올해로 개교 62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학교로 종현산을 바라보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학교 앞에는 허브 아일랜드가 있고 학교에서 초성리 방향으로 5분 거리에 신북온천이 위치하며 열두개울을 즐기러 가고 있으며 학교 앞에는 약수터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한 교장은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포천 삼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전교생이 1주일에 3회 골프연습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



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24명으로 구성된 골프 동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결손가정이 많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마다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내에 있는 학생들보다 좋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특히 11월1일부터 삼성중학교에 배정된 원어민 교사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 삼성중학교와 교육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삼정초등학교 골프부에서 삼성중학교 학생들이 골프를 배우고 삼정초등학교 학생들은 삼성중학교에서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포천삼정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한 교장은 자랑한다. 사랑과 정열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사색마련이 절실하다.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곳까지 와서 강의를 해줄 강사가 없다. 다행인 것은 맨스스포츠를 무료로 강요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열심히 배운 학생들이 지난번에는 발표 무대도 마련했다. 너무 고마운 일이다.

한 교장은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다행인 것은 이 지역 출신 조동창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감에게 건의한 복식학급 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하향조정을 받아 들여진다면 포천삼정초등학교는 현재 5.6학년이 복식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된 학급으로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7차교육과정을 수행해 나가기에 벅차지만 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교직원들과 함께 68명의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당찬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한태현 포천삼정초등학교 교장이 지치지 않도록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동료가 바라본 이홍일 선생님



이정균 송우중교사

“감사합니다. 송우중학교의 최고의 미남, 교사 이홍일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것은 송우중학교 체육교사 이홍일 선생님의 전화 응대법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며 때로는 자신에게 엄격하며 또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선생님. 바로 이 분이 봉사를 몸

에 달고 사시고 성실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며 사시는 분이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분을 모두 송우중학교의 보배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시지만 이것은 동료 교사들은 곧 바로 공격에 들어간다. “나 좋은데 송우중학교 최고의 미남이라는 멘트를 제발 좀 빼실 수 없나요?” “어떻게 그 얼굴로 얼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얼굴이 미남이라면 대한민국 남자가 모두 미남입니다.” 모두들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제발 그런 멘트를 듣지 않게 좀 해주세요...”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 명의 교사가 교무실에서 한바탕 까르르 웃는다. 모두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언제부터였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아침 출근길 교문에서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된 것 같다. 3월 초순은 모두가 신설교인 본교의 개교학교 꾸미기에 정신 없이 바빴으니라 옆을 돌아 볼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아침 일찍 이 선생님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던 것 같다. 운동장에서...교사주변에서...교문

앞에서... 화장실에서...현관에서... 화단에서... 학교 곳곳에서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선생님, 손에 쓰레기봉투와 빗자루가 들려져있고 분주히 돌아다니시는 이 선생님의 모습. 모자 쓰고 장갑 끼신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등교시간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꼭 만날 수 있는 선생님. 이제는 지경을 넓혀서 태봉초 교문까지 진출(?)하시고 어느 때부터인지 태봉공원 앞 큰 삼거리까지 이르고 도로변 청소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분을 모두 송우중학교의 보배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시지만 이것은 동료 교사들은 곧 바로 공격에 들어간다. “나 좋은데 송우중학교 최고의 미남이라는 멘트를 제발 좀 빼실 수 없나요?” “어떻게 그 얼굴로 얼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얼굴이 미남이라면 대한민국 남자가 모두 미남입니다.” 모두들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제발 그런 멘트를 듣지 않게 좀 해주세요...”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 명의 교사가 교무실에서 한바탕 까르르 웃는다. 모두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길 교문을 지나가며 인사치레로 수고한다며 몇 마디 건네곤 했던 것이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선생님은 많은 동료교사에게 새로이 건전한 도전을 건네주고 있다. 전교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교사랑, 학생사랑, 지역사회에 앞서려 노력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품에 배어있는 헌신의 모습은 더욱 돋보이는 것 같다.

그가 가는 곳에 웃음이 있고 그가 머무는 곳에 재치가 있으며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송글송글 영글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송우중 배움터가 참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일소일소(一笑一少) 일노일노(一怒一老) 즐거운 마음들이 모인 곳, 행복한 마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진정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송우중학교에 사랑의 기운이 채워졌기 때문이고 많은 선생님들

의 유머감각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때문이라. 성실을 몸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구성된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고 또 이처럼 직접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선생님이 계시기에 많은 도전이 되고 이것이 전 교사의 기쁨이 되고 있다.

체육시간은 더 이상 공 차며 놀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라는 것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들 알게 되었으리라. 체육활동이 참으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선생님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교내 체육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호흡을 맞추고 한 바탕 신나게 뛰며 마음을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친한 내 반 친구임을 느끼게 하려는 선생님의 의도와 노력의 결실이었고 평소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선생님의 의지와 생활의 표현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연구하여 얻어내는 체육활동 프로그램들이어서 그 뜻과 의미가 큰 것이 아닐까?

이제 추운 겨울이 왔다.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어도 송우중학교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따뜻한 봄날 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봄날처럼 따뜻하기 때문이라. 상대방을 늘 배려하고 고치는 마음들이 날려있고 웃음을 선사하기를 진정한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송우중학교!! 이미 이 선생님께서 그 불을 당기셨으니 이곳 솔로루 벌판이 사랑의 장으로 변화하리라 확신한다. 오늘도 송우중학교에 사랑의 기운이 차고 넘칠을 느낀다.

《 함께 공부해요 》

明夫婦之別(명 부부 지별) 부부간에 분별을 밝힘 ⑦

退溪先生曰夫婦是人倫之始 萬福之源 이니 雖之親至密 이니 而亦至正 至謹之地 라
퇴계선생말 부부는 인륜지시요 만복지원 이니 유지친지밀 이니 내역지정 지근지지라
世人이 都禮敬 하고 禮相狎하여 遂至侮慢凌蔑 하여 無所不至者 皆生於不相敬之故 니라.
세인이 도망례경 하고 거상압인 하여 수지모만능멸 하여 무소불지자는 개생어불상반경지고 니라(禮 감자기거. 재 빠르다. 날렵하다. 께익숙할압. 침압하다. 업신여긴다. 친할날(일) 친숙해지다.)

예와 공경을 잊고 대번에 서로 지나치게 친하여 마침내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데에 이르러,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이는 손바닥처럼 공경하지 않는데서 연유된 것이다.”
성서에서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義務)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전7:3)
“부부관계를 감치의 법칙에서 배워본다. 배우는 5번 이상 죽어야 감치가 된다. 땅에서 뽕할 때, 칼로 배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매운 고추와 마늘양념에 버무려 질 때,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때...그래서 감치

(문의:011-354-6485)



양주송 본지 자원연방

퇴계 선생이 말씀하였다. “부부간은 인륜의 시초이며 만복의 근원이니, 비록 지극히 친하고 지극히 가깝더라도 지극히 바르게 하고 지극히 삼가야 할 사이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윤중성의 미국어따라하기



23. 시장동향이 어떻습니까?
How about its market trend?
하러바웃잇스마 츠렌?
- 금년에 시장(규모)가 30배 이상이나 커졌네다.
Its market has increased over 30 times this year.
잇스마 헛신크뤼트 오버퍼리 처렌
24. 기차를 방금 놓쳤네요.
I just missed the train.
아이저스미스 더츄레인
- 다음 기차가 5분 내에 도착합니다.

The next one is due in five minutes.
더넥스원잇스듀 인화이브미니츠
25. 언제 얘기 날아요?
When do you expect the baby?
웬두유익스펙터베이비
-우리애기 11월 출산예정 이예요.
The baby is due in November.
더베이비잇스듀 인노베이버
26. 살찌는 것 같애, 몸무게가 얼마야?
You look getting fat, what is your weight?
유룩게링겟, 워리슈어웨이트?

- 약간, 150 파운드 조금 넘어
Not much, a little over 150 pounds.
날마취, 어리름오버한드핏타파운스
27. 저 친구 젊어보여, 몇살이야?
He looks young, how old is he?
히룩스영 하우올이스히?
- 벌써 70인데,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
He is already 70, looks younger than his age.
히스얼웨이 세븐디, 룩스영거댄 히스에이지
28. 저 사람 키 정말 크다, 응?
He is really tall man, huh?
히스리얼투얼매인,하?
- 그래, 6피트가 넘는 것 같애
Yeah, looks over 6 feet, I guess.
야, 룩스오버 씨스투아이이게스
문의:(017-723-4977)cdyoon@ndc.com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신촌 오리천국

하송우리에서 "전주식백반"을 운영하다 고객님의 성원에 힘입어 **신촌오리천국**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고객님의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촌오리천국**이 되겠습니다. 대표 : 김형준

◆메뉴◆		◆점심특선◆	
오리로소	30,000원	오리불고기정식	6,000원
오리훈제구이	35,000원	오리탕	5,000원
오리훈제찜	35,000원	가미술밥	1,500원
오리모듬구이	35,000원		
오리반미리	20,000원		

최고의 맛·양·친절

예약·문의전화 ☎ 031) 544-3911